



정해권 의장 인천시의회 전직 의장들과 ‘소통’ 잔걸음

선후배 의장들과 지방의회 발전 방향 논의 역대 의장단 인천 민심의 방향성 등 조언

인천광역시의회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역대 선후배 의장들을 초청해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당을 가리지 않는 소통이 눈길을 끌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란 세월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의장들은 원로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민심의 소리에는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역대 의장 10여명은 의정 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과 노하우 전수 및 공유하며 현장 경험의 조언을 피력하는 시간이 됐다.

제9대 후반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9대 전반기 허식·이봉락 전 의장 현역과 박창규 의정회장(제5대 1기), 박승숙(제4대 2기)·강창규(제5대 2기)·노경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고 전임 의장들 모두 의정 발전에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의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의 인천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선배 의장님들의 조언을 들겠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전임 의장들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격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전 현직 의장 모습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는데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과 훈훈한 덕담이 이어졌다.

박창규 의정회장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써 나갈 새로운 지방의회의 역사가 기대된다”라며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의 원동력과 추진력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인천시의회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승숙 전 의장은 “최근 시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비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라면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

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허식·이봉락 전 의장들은 입을 모아 “인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함은 물론 소통과 협치로 광역의회 선도모델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의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노경수 전 의장 또한 화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하겠다”라고 응원했다.

한편, 후반기 정해권 의장 집행부는 지역 맞춤형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 의장은 발로 뛰는 행보로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와 새해도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 교통문화지수 특·광역시 중 ‘1위’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전국 지수 보다 2.33점 높아 83.06점으로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도약... ‘5년 연속’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전국을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군지역, 자치구)으로 나누어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한다.

2024년 인천시의 교통문화지수는 83.06점으로, 전년(82.66점) 대비

0.4점 상승했으며, 전국 지수(80.73점)보다 2.33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시의 지속적인 교통문화 개선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간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라며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교통의식과 협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자치구 그룹 평가에서는 인천시 연구구가 가

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동구(2023년), 남동구(2022년), 부평구(2021년), 남동구(2020년)에 이어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가 5년 연속 자치구 그룹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2025년에는 더욱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순 기자

[이달의 시] 1월편 아파트살이

현관 입구 우편함
주인이 뽑아가길
혀 빼물고 기다리는 고지서
반가운 편지 끊어진 지 오래다

머리 위에서 발아래서
똑같이 먹고 잠자다가
어쩌다 같이 타는 엘리베이터
몇 초를 동행해도 낯선 이웃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날아오는
공과금 내기에 급급한 살림살이



◆필자: 靑野 김옥자 (시인)
- 경북 봉화 출생
- 『문학바탕』 시 등단 (2015) 수필 등단 (2017)
- 저서 / 시집 <제비꽃 같은 울 엄마>
<원추리꽃을 닮아보리라>
<연안문학회 회원 연재>

[이달의 시] 2월편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가을 햇살이 젖은 기억을 부른다

단정한 차림에 하늘을 향해 웃는 모습이 고왔던 너
주위를 배회하는 시선에
주근깨 알알이 박힌 동그란 얼굴은 고개 숙였지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던 어느 날
깊게 웅크린 바람 앞세우며
노란 바바리 차림에 늘씬한 큰 키, 콧대까지 세우고
차가운 손으로 내 가슴을 후벼놓았지

희미한 낫달이 내려보던 날
쓸쓸함을 동여맨 공원에 앉아 나른한 한숨을 내뿜고
몸 밖의 추위보다 몸 안의 추위가 더 춥다며

탱탱하게 영근 사연을 허공에
깨알같이 쏟아놓고 사라졌지
작은 파동에도 상처 나고 베이는 그녀는
겨울을 한 짐 채우고 외로움을 끌고 다닐 텐데

풍요로운 황혼은 혼자가 아니고 그리움과 함께 왔다
나는 그녀의 솔한 날을 다시 안을 수 있을는지



◆필자: 박순심 (시인)
- <한국시조문학>신인상(2017) 본상 수상(2019)
- 총주(중원문학)우수상(2018)
3행 시조 짓기 공모전 우수상(2021)
- 연안문학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저서/ 시조집 『그리움의 진혼곡』
『초록 스케치』